



멕시코에서 보내는 선교편지

2026년 5월호.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Bendicion Celestial 교회 아이들과 함께..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전쟁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온갖 두려운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짧은 소식을 전합니다. ♥

◆ 파시피코 교회 사역

지난 달에도 파시피코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또 등록하였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고, 둘째로는 지속적인 어린이 초청 잔치와 이웃 주민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저희가 왔을 때에는 단지 네명의 성도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10명이 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새로운 교사와 함께 계속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숫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당분간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6월부터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수강생이 모집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남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호세 목사 사모님은 둘째아이(딸)을 출산하였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있습니다. 사모님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곧 다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 미자립 교회들은 목사와 사모 모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 때문입니다.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이들의 교회들이 부흥하여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



◆ 마약 재활센터 사역

이제 매주 재활센터를 찾아가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티후아나의 동료 선교사가정과 자원하는 현지교회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이곳 한인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들의 시급한 육체적인 필요는 '배고픔'입니다. 매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첫번째 토요일에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240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하는 금요일에는 간단히 빵과 우유를 준비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빵 두개와 함께 350ml 짜리 컵에 우유를 다섯번이나 받아서 먹기도 합니다. 너무나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영생의 말씀도 이들에게 심기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 공부하는 입소자들

 예수 사랑! 사람 사랑! **예수 증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4:12)

◆ 주일학교 교재 보급 및 교사 훈련

이곳 멕시코의 교회들은 대부분 어린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사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도 한국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지난번에 싼킨뎀에 가서 주일학교 성경교재를 보급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일학교 성경 교재를 보급하고, 교사를 훈련하는 일들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줌으로 미팅을 하고 다음달에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교재를 활용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두 교회만 같이 하기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벤디시온 교회 사역

티후아나 국경 바로 아래 산 중턱에 벤디시온 셀레스티얼(Bendicion Celestial)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클라우디아 사모도 어린이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달 부터 이분들의 사역을 협력해서 돕고 있는데요. 같은 티후아나이지만 이산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공부 후에는 저렇게 공 하나로 뛰어 놉니다. 물이 귀해서 옷도 잘 못 빨고, 씻지도 못해서 예쁜 아이들이지만 꼬질하기도 합니다. 3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한번은 이 아이들과 성경말씀 책갈피 만들기를 했는데 한 아이(10살)가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모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글씨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글씨를 가르쳐줘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목사님 부부가 야채를 싸게 구해다가 팔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오도록 재정 지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



◆ 말씀 사역

재활센터에서 동료 선교사가 첫째 주에 설교를 하고, 제가 셋째 주에 설교를 합니다. 입소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는 주일에는 파시피코교회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고, 다음달 셋째 주에는 재활센터에서, 그리고, 넷째 주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가 예약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 선교센터 건축

지난 번에 국경 아래 산 위에 센터를 짓고 계신 GP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저희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곳에 가서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장소를 완공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좁은 예배당에서 5~6세부터 18세까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을 적어도 유치등/중고등 정도는 나누어서 그들에 맞는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현재 저희 손에 준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이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센터를 완공하기까지는 적어도 3~5만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손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무엇보다 실제로 건축을 하는 현지인 또는 건축 기술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빠지는 사역들 중에서도 건축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평소에도 2륜차는 다니기 힘들고 비가 오면 4륜차도 잘 못 다닌다고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 한글학교 와 커피브레이크, 요리교실

지금 최선교사는 티후아나 온누리교회에서 한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교사가 9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월요일엔 현지교회에서, 수요일엔 한인교회에서 커피브레이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현지교회에서 한국음식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현지 교회에 힘이 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 네 딸들 이야기

첫째 하연이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여러가지로 섬기느라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하진이는 칼빈대학교 3학년에 편입되어 오는 8월에 미시간으로 갈 예정입니다. 학비가 잘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은이도 학교/교회 잘 다니고 편입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민이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는 일에 대해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하민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안에 든든히 서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말씀을 더 사모하며, 기도가 더 깊어지며, 매일 매일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현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 재활센터 입소자들이 찬양과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 파시피코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 이제 시작되는 주일학교 공과교재 보급과 교사 훈련 사역이 잘 진행되고, 함께하는 현지교회가 많아지게 하소서.
- 벤디시온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협력하는 손길을 더해 주소서.
- 건축이 중단된 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실한 현지인들을 보내주셔서 건축이 잘 완공되게 하소서. 이곳에 다니기 위해 4륜차가 꼭 필요합니다.
- 하진이와 하민이의 학비를 주시고, 하민이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 저와 최선교사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갱년기가 빨리 지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